

회원사 소식

LG텔레콤, 사장 영국 BT 방문

LG텔레콤 사장(남용)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LG텔레콤의 전략적 제휴업체인 영국의 BT사를 방문, 피터 본필드 회장과 만나 양사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사장은 이번 영국 방문기간 중 BT의 네덜란드내 조인트 벤처사로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텔포트(Telport)사의 사업전략과 BT의 차세대 이동통신사업 준비현황, 그리고 BT가 대주주인 영국의 이동전화사업자 셀넷(Cellnet)사의 사업 전반에 걸쳐 설명받는 기회를 가졌다.

LG텔레콤은 남사장 방문결과를 토대로 선진통신사업자로서 BT의 사업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국통신, 무궁화 위성 통한 고속 멀티 서비스 실시

한국통신이 무궁화 위성을 통해 고속 인터넷 접속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궁화 위성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50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후 올해 3월 말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통신이 이번에 개발한 무궁화 위성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지상, 위성 복합망으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상향은 지상망을 이용하고 하향은 무궁화 위성을 이용해 최대 3Mbps의 속도를 제공하며 비디오, 오디오 서비스는 물론이고 위성방송도 수신해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75cm 정도의 수신 안테나와 수신 보드로 구성된 30만원대의 위성모뎀수신기를 PC와 연결하면 돼 가격대비 성능면에서 기존의 전화선이나 케이블모뎀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한국통신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통신은 최근 구의동 소재 서울위성지구국에서 무궁화 위성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개통식을 갖고 『위성을 통해 전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할 수 있어 도서, 산간벽지, 산간오지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LG정보, 조직 개편 단행

LG정보통신이 사업본부제와 OBU(Operating Business Unit)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업수행체제를 단순화하고 사업단위별 집중력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기존 5개 제품별 사업부를 2개 사업본부로 재편하고 그 산하조직으로 사업운영단위인 OBU를 신설해 사업운영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정보통신은 기존 교환/전송, 이동통신, 통신운영, 단말, 정보 등 제품별 5개 사업부를 「시스템」과 「단말」 2개 사업 본부로 재편하고 그 밑에 각각 3개와 2개의 OBU를 뒀으며 네트워크 제품 등을 담당하는 정보 OBU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또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기존 세계화 부문은 독립된 사업본부인 「해외사업본부」로 편성했고 사장 직속으로 전사적인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CTO(Chief Technical Officer), 상임감사, 재경담당(CFO:Chief Financial Officer), 관리담당을 두었다.

특히 R&D 부문에서는 「연구」와 「개발」을 분리, 연구조직은 사장 직속의 CTO가 관장해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토록 했으며 개발 조직은 각 OBU장들이 운영해 순수 연구와 제품 응용과의 접목을 원활하게 했다.

LG정보통신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모든 회사의 역량을 시장과 고객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해 향후 정보통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2억2천만달러 규모 CDMA장비 호주에 수출

삼성전자가 호주에 2억2천만달러 상당의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장비를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호주 제2 이동통신 사업자인 허치슨사가 실시한 국제 입찰에서 CDMA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는 2000년부터 2년 동안 CDMA 교환국, 기지국 및 전송 장비를 수출하고 망설계, 설치 및 시험, 네트워크 운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수주로 시스템 개통 후 8년 동안 증설과 유지보수 물량도 확보했으며 이동전화 단말기 7만대도 공급하게 됐다. 특히 호주 최대 상업도시인 시드니와 행정수도인 멜버른 지역에 장비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호주에서 삼성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호주는 오는 2000년부터 기존 유럽 이동전화 표준인 범유럽디지털이동전화(GSM)와 함께 CDMA 방식도 사용키로 함에 따라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호주 이동전화 시장은 가입자 수가 5백만명에 육박, 인구대비 28%에 이르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에는 8백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쌍용정보통신, PCS망을 이용한 차량위치추적 서비스 상용화

PCS망을 이용해 이동차량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전자지도상에서 파악, 현장출동과 운행경로 지시 등의 지령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량위치추적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들어갔다. 쌍용정보통신(대표 염정태)과 한국통신프리텔(대표 이상철)은 지난해 9월 초부터 경기 화훼농협을 대상으로 시작한 2개월간의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지난 최근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화물 운송, 여객 등 물류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는 등 서비스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또한 쌍용정보통신은 서비스 가입 업체 특성에 적합한 통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과 서버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차량을 단말기 공급에 적극 나섰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부가가치 정보를 위해 교통정보, 기상정보, 증권정보 등 각종 콘텐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력과 016 PCS망을 접목한 이번 모빌넷(MobilNet) 서비스는 위치추적시스템(GPS)를 활용, 이동중인 차량의 위치와 운행경로, 화물적재상태, 비상사태등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모든 정보를 PCS망을 통해 차량의 본사나 각 통제센터로 자동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본사나 각 통제센터에서는 차량에서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출동 다음 운행경로 등의 지시를 PCS망을 통해 이동중인 해당 차량에 즉시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량운행의 효율화는 물론 시간과 통신비,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수 있게 된다. 